

Ecotourism & Sustainable Tourism Conference 2017

ESTC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

2017. 9. 12.(화) ~ 15.(금), 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 시정소식지 | NO. 445

대송습지 저어새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광덕산 습지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ansancity3](https://www.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blog.naver.com/cityansan [instagram.com/ansancity](https://www.instagram.com/ansancity)

발행일 2017년 8월 23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diansan.net e-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도시 숲’은 안산이 ‘대한민국 최고’ 2년 연속 환경대상 수상... 녹지 공간 대폭 확충 ‘인정’

폭염이 계속되며 ‘도시 숲’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 숲에 대해 “폭염을 막는 천연에어컨”이라고 평가하며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했다. 실제 산림청이 도시 숲의 온도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섬 나무 그늘과 가로수 거리에서 체온 변화를 측정한 결과, 교통섬은 평균 4.5도, 가로수는 2.3~2.7도 표면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도시 숲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안산의 도시 숲’이 ‘대한민국 최고’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달 서울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17 대한민국 환경대상(이하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안산시가 ‘도시 숲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 이는 지난해 대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안산시가 숲과 생태가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자리매김 되어 간다는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안산시는 지난 2015년 ‘2030 숲의 도시 안산’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도시 숲’ 조성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선점한 바 있으며, 이의 실천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전개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1인당 도시 숲 면적을 목표로 지난 3년 동안 쌈지공원 조성, 건물옥상 녹색쉼터, 학교 명상 숲, 야생화 꽃동산, 삼림욕장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권고 면적인 9㎡를 초과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도시 숲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시민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1사 1공원 가꾸기, 수인선 철도 상부 공간 공원 조성, 인공 생태습지 조성·체험, 자연생태 및 하천 복원사업 추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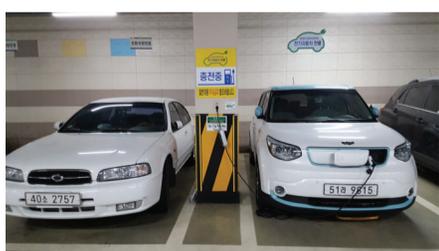
이번 수상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환경 분야 시상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환경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환경오염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사람과 숲과 생태가 모두 함께 살아 숨 쉬는 세계적인 환경문화 생태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이었던 우리 안산은 최초의 계획도시로 산업화를 이끄는 과정에서 사회화의 수질악화와 악취 등 아픈 기억이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재생시킨 기적을 일군 저력이 있다”며 “이제 안산 어느 곳을 가든지 꽃과 나무와 숲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전망으로, 우리가 가꾼 도시 숲은 천연에어컨으로서 폭염을 막고 나아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문의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246)

● 숲은 천연에어컨으로 폭염을 막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것 ●

안산시 · (사)안산시아파트연합회 · (주)파워큐브 ‘협약’ 전기차 보급 활성화 위해 아파트에 충전기 늘린다



안산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충전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안산시와 (사)안산시아파트연합회, 설치업체 (주)파워큐브가 참여했으며, 시는 홍보와 행정지원, 아파트연합회는 장소 제공 및 주민대상 홍보, (주)파워큐브는 충전시설 보급 및 유지·관리를 책임진다.

현재 안산시는 전기차 구매 시 대당 최대 2,100만 원의 구매 보조금뿐만 아니라 개인용 완속 충전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가 용이한 주택과 달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차공간의 부족과 주차면 독점과 같은 이유로 전기차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이번 충전시설은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에 위치확인 표

시(RFID-무선인식기술 태그)를 붙여 충전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고 기존 220V 콘센트만 있으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 안산시는 총 가구 265,234호 가운데 약 36%인 93,859호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친환경 전기차 확대보급의 선구자로서 청정도시 안산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환경생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을 대상으로 선착순 76대로 마감할 예정이며, 구매 보조금뿐만 아니라 최대 460만 원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료비가 휘발유차의 10% 수준이며 자동차세도 연간 13만 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공영 및 공항주차장 이용도 59% 할인되며,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추진 중이다.

◇ 문의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894)



안산희망마라톤대회, 지역단체와 협약 체결

9월 24일,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대축전



안산희망마라톤대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과거 행사를 통한 행사방식에서 벗어나 안산시육상연맹과 안산시체육회가 직접 기획, 홍보, 소통하며 준비했다. 특히, 안산시 총 7개의 향우회(호남, 강원, 충청, 영남, 충북, 제주, 이북5도민)와 성공적 대회를 위한 협약을 맺었으며 많은 지역 유관단체도 적극 지원의지를 밝혔다.

안산시체육회는 지난 대회에서 느꼈던 아쉬움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행사를 기획했다. 오랫동안 도로를 차단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각각 다른 3가지 코스(하프, 10Km, 5Km)로 나뉘었으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부스와 공연, 퍼포먼스 등을 진행한다.

문화·예술 부분은 안산지역 케이블TV 한빛방송과 함께 기획, 진행한다. 한빛방송은 안

산시민 약 8,000여명이 참여하는 '안산희망마라톤대회'를 4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편집·방송 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대회가 끝난 후에도 한빛방송 영상을 보며 그날의 화합을 다시 느껴볼 수 있다.

김철진 안산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함께 운동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고, 화합하는 마라톤대회가 되었으면 하며, 안산시민들이 가을안산의 여러 경관이나, 와~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안산이 보다 희망을 찾는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가 되는데 있어 마라톤과 운동의 좋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희망마라톤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안산시민은 www.ansanrun.com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배번호와 이름이 적힌 기념티셔츠를 받을 수 있다. 와~스타디움을 출발하여 아름답고 시원한 시화호를 따라 뛰는 환상적인 마라톤 코스를 함께 달려보자.

〈협력기관〉 안산시사립유치원연합회,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안산시학원연합회, 안산시지역 아동센터협의회, 안산시태권도협회, 안산시야파트연합회, 안산시 13개 위생관련단체, 사)대한미용사회 상록구지부, 사)대한미용사회 단원구지부,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안산시지부, 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경기도지회 겸 안산시지부, 사)한국유형업중앙회 안산시지부,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안산시지부, 사)한국단란주점업 안산시지부,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안산시흥시지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안산시지부,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안산시지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단원구지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상록구지부, 사)대한제과업중앙회 안산시지부

◇ 문의 : 안산시체육회(031-481-3540)
유가희 명예기자_425170@naver.com

안산·시흥·화성, '2017 시화나래 마린페스티벌' 개최

"시화호의 찰랑이는 물결을 손발로 직접 느껴보세요"

안산시, 맑아진 시화호에서 펼쳐지는 '핀수영대회·뱃길투어' 주관 "자, 이제부터 시화호 바닷물을 직접 느껴 보는 겁니다. 앞사람은 카약 오른쪽으로, 뒷사람은 왼쪽으로 돌아 앉아 바닷물에 발을 담그세요. 물장구도 치고, 다시 몸을 돌려서는 뒤로 완전히 몸을 눕혀 수평선 저 너머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지금 아니면 언제 카약을 즐기고 시화호의 찰랑이는 물결을 손으로 발로 느껴보겠습니까?"

해양레포츠 지도요원의 주문에 '2017 시화나래 마린페스티벌' 사전 팸 투어 일행은 함성을 질렀다. 카약을 처음 타보는 두려움은 잠시잠깐 "왼쪽" "오른쪽" 호흡을 맞춰가며 노를 저었다. 부표가 있는 시화호 저 편까지, 시원해지는 즐거움 속에 나아갔다.

안산시와 시흥시, 화성시에 걸쳐 있는 시화나래에서 핀수영대회·시화나래 뱃길투어·카약·바다레프팅·우음도 에코 트래킹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2017 시화나래 마린페스티벌'이 9월 2일(토), 3일(일) 이틀 동안 열린다.

안산시는 맑아진 시화호의 수질개선 홍보와 해양스포츠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핀수영대회'를 주관한다. 핀수영은 1m² 정도의 커다란 핀(fin, 물갈퀴)을 발에 끼고 허리만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 수영법으로, 이번 대회에는 대한체육회 동호회 선수 600명을 모집해 경쟁, 비경쟁부문 2km 종목을 진행한다.

배를 타고 약 40분 동안 시화호를 돌아보는 '시화나래 뱃길투어'도 준비됐다. 축제기간 동안 관리선 1척, 요트 2척, 보트 1척 등 총 4척의 배가 540명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카약과 바다레프팅 대회를 마련했다. 2인이 1팀을 이뤄 카약을 타고 시화호를 가로지르는 5.6km 완주형 카약대회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100m, 200m 바다레프팅 대회는 어린이부, 청소년부, 일반부로 대회종목이 나뉘어져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화성시는 갯벌체험을 포함한 시화호 환경학교와 우음도 둘레길과 조력발전소 T-라이트



전망대를 코스로 하는 '우음도 에코트래킹'을 준비했다. 코스 사이사이 다양한 체험활동과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팸 투어에 참여한 김선경(시흥시 정왕동·23세)씨는 "가까이 살면서도 시화나래에 자주 와보지 못했는데, 오늘 기대이상의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시화나래 마린페스티벌에 오면 즐거움과 행복한 추억이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화호는 1994년 2월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를 잇는 길이 11.2km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만들어졌다. 시화나래는 시화호의 조력발전소, MTV, 송산그린시티, 공룡알 화석지, 대부도, 갈대습지공원 등으로 수도권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됐다. 특히, 이후 건립될 방아머리 마린나항과 해양레포츠 시설, 수상비행장 등으로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 문의 :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3952)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흥, 대규모 채용박람회 연다

청년층·특성화고 대상... 올림픽기념관에서 8월 30일 오후2시



청년층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에겐 우수 인력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만남의 장이 마련된다.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청년층·특성화고 대상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안산·시흥지역 6개 일자리 유관기관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지역 및 인근 50여 개 기업체와 2천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인업체 부스별로 1,2명의

인사 담당자가 참여해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본 후 채용까지 진행하게 된다. 구직자들은 당일 이력서를 작성한 후 구인업체와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시흥에서 열렸던 채용박람회에서는 60여 개 구인업체와 1,5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293명이 현장에서 채용된 바 있다.

행사 당일 구인·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기대할 만하다. '청년 해외취업 특강'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열리며, 특성화고등학교와 유관기관의 홍보부스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현장 행사관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진행하고, 이력서 사진 촬영 및 이미지 메이크업 부스도 운영된다. 직업심리검사와 취업타로카드 등 구직 활동을 돕거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 준비됐다.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는 "이번 행사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안산·시흥 6개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굵직굵직한 업체들과 든든한 중소기업도 많이 참여할 예정이니 청년 구직자들이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2919/2277)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⑨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세레모니 - 전국 풋살장 예약정보 실시간 제공

좋아하는 일이 창업으로, 창업은 꿈을 향한 발판으로!



전국 풋살장에 대한 예약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세레모니(Ceremany)'가 9월 론칭(launching, 출시)을 앞두고 있다. O2O란 오프라인상의 재화나 서비스에 온라인을 접목시켜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매일 축구를 해왔던 장준영 대표(27세)는 고향 서울에서 부산, 안산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성장했다. 혼자 즐길 수 없는 축구 특성상 이사할 때마다 팀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고, 지역마다 구장 대관 절차도 달랐다. 학과 내 동아리 '세레모니'에서도 활동했던 장 대표는 축구인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세레모니'를 개발하기로 했다.

'세레모니'는 구장에 대한 대관정보 외에도 용병매치,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용병매치는 소속이 없는 사람들끼리의 매치를 주선해주는 것. 이용자들은 소정의 참가비를 내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예약할 수 있다. 또, 이후 지속적으로 재방문할 수 있도록 축구 전술 칼럼이나 뉴스를 제공한다. 채팅방을 개설해 팀별로 관리하며, 개인 트레이닝에 이르

기까지 축구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GPS를 기반으로 한 전국 구장 정보는 지역별 데이터베이스를 세분화해 제공할 예정이며, 마이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조건에 맞는 구장을 추천한다. 월별 스케줄, 토너먼트 개최, 동영상 촬영, 프로선수와의 이벤트 매치 등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구장 홍보 및 이용률을 높여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온라인 결제 '페이팔', 우주개발 '스페이스X', 전기차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의 화성 이주정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탄생했어요. 머스크는 태양전지 사업에도 뛰어났죠." 광촉매, 태양전지 등 응용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장준영 대표는 '창업'과 '과학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올해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다.

기획 임성철, 영업 양승학, 마케팅 이현우, 프로그램 개발 이지수와 함께 결성한 축구 어벤져스 팀 '세레모니'. 이들의 아이디어가 적힌 스토리보드가 애플리케이션으로 현실화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응용과학 분야의 기술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청년큐브'에서 창업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쌓으며 '한국의 머스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문의 : 세레모니(superjoon828@naver.com)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대표 장준영



심장을 울리는 두드림 '난타'

사회적기업 난타인안산

한국타악퍼포먼스협회

'한국타악퍼포먼스협회 NANTA IN ANSAN(이하 난타인안산)'은 음악이 가진 치유와 승화의 힘을 함께 하고자 2010년에 결성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과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가치를 나누고자 2014년 비영리 민간단체로 전환했다. 이후 고용과 나눔이 있는 사회적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2015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올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자격증 발급 등 다양한 교육사업 모델이 생기면서 협회로 등록, 현재 5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단원들의 노련한 실력과 경험을 토대로 성장하며 공연 및 교육 사업으로 문화 서비스를 제공, 지역 문화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고 있다.

'난타인안산'의 공연은 창작 타악과 코믹한 요소를 결합한 독자적인 색깔을 자랑한다. 신나는 케이팝(K-POP)과 국악장단을 결합해 장르를 초월하는 퓨전 타악 콘서트를 만들고 있으며, 파이어 댄스(FIRE DANCE), 엘이디(LED) 퍼포먼스, 물 퍼포먼스 등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협회 주관 교육은 누구나 쉽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심도 있는 강의로 실력을 쌓아갈 수 있다. 초·중·고 방과후학교 및 동아리 활동,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 교육 과정, 기업연수, 축제준비를 위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 등 다양한 출장 강습이 가능하다.

김대권 대표는 "취미활동으로 이렇게 쉽게, 단시간에 배워 그럴싸한 공연을 할 수 있

는 장르는 많지 않다. 동호회 팀을 포함한 100여 명 회원들 대부분이 주1회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 있다."며 "스트레스를 날리는 취미활동이 보람찬 일자리로 연결되고 자존감을 찾아가는 선순환 구조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2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타악그룹 '블랙퀸'이 '더 비트(The BEAT)'를 공연한다. 타악·비보이(B-Boy)·태권도 퍼포먼스와 사물놀이, 마임으로 스토리를 이어가는 흥미진진한 서사시를 감상하며 세상의 모든 박동을 한바탕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 문의: 한국타악퍼포먼스협회(031-408-8305)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만듭니다”

⇒ 지난호에 이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지 10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이 포함되고, 중소기업청 내 사회적경제국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브라보안산은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안산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을 소개한다. 이에 앞서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운영 중인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현수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은?

Q. 2012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로 출발, 2014년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16년 8월, 사회적경제협동화단지로서의 역할을 위해 월피동 광덕시장으로 이전했다. 사회적기업을 발굴·홍보하고, 지원과 협력적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초기 역할이었다면 현재는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종합적인 생태계 조성 및 성장, 시장 조성, 교육을 지원하고 신규모델 발굴·육성 및 기반을 구축 역할도 맡고 있다. 또한 센터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로서 입주단체 사무

실, 공동 사무공간, 세미나실, 다목적실 등을 마련했다. 현재 7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은 최장 3년 동안 교육, 컨설팅, 상담 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자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현수 센터장

Q.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하는 것은?

2017년 6월말 현재 1,240명이 사회적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고, 이중 75%가 취약계층이다. 반월공단 노동자의 1%가 연매출 260억을 올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유지해나가도록 지원하며 더 좋은 일자리로 발돋움하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청년 쉐어링하우스, 마더센터 등 주거와 질 높은 보육 등으로 넓혀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사회적경제라는 대안적 경제 모델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미션과 비즈니스 방식이 적절히 균형을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

Q. 센터의 비전은 사회적경제를 통해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소공장,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불평등·불합리한 경제구조 전반에 대한 보완 기능으로 동반성장하기 바란다. 청소년은 행복한 꿈을 꾸고, 청년들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갖는 꿈이 실현되는, 중장년들도 기존의 경제구조에서 충분히 살아가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동하며 함께 행복한 사회를 그려본다. 주거, 보육, 교육, 자원순환 등 지역의 과제들이 선순환되는 구조로 변환되기를...

◇ 문의: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481-8942)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시, 위기 가구 집중 발굴·지원 복지문화국 중심 지원단 구성...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지만 에어컨 바람이 닿기 어려운 곳도 있다. 안산시는 2017년 하절기를 맞아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 복지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 동절기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공적·사적

복지 지원이 미치지 못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원한 도움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각과 업무 관련 팀장,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장 및 행정민원팀장(사무장)을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단'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나 '행복e음 시스템'에 통보된 1,350 위기 가구 및 저소득 가구 등을 발굴한다. 각 행정복지센터 통장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우체국 등도 함께 한다.

이렇게 발굴된 위기 가구에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적급여 신청을 안내·지원한다. 소

득기준은 부적합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그 외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으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 후원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폭염이나 태풍 등으로 여름나기가 힘든 기간 동안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가 있다."며 "이를 발굴해 공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문의 :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3024)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단원보건소 원곡보건지소, 외국인 무료 진료 평일 진료 어려운 노동자 위해 일요일에 실시



단원보건소 원곡보건지소는 평일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국 생활에서의 건강관리 능력을 키우며 더불어 외국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일요일 무료 진료를 운영하고 있다.

연중 매주 일요일, 지역제한과 외국인 등록 유·무와 상관

없이 약 300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등의 기초건강 측정과 건강검진 및 상담, 진료, 투약, 복약지도 등이 진행된다. 또한 2차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경우 진료의뢰서 작성, 진료자 전산입력 및 감염병 이상자 연계관리 등 진료 후의 필요 절차를 돕기도 한다.

진료과목은 내과, 재활의학과, 치과, 통증클리닉, 안과, 한방과, 산부인과 등이 있다. 일요일 무료 진료는 원곡보건지소를 중심으로 10개 재능기부단체, 약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운영된다.

8월 6일 진료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의료봉사단과 안산대 간호학과 웰니스 봉사단이 함께 했다. 하루 동안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몰린 보건지소는 이국에서 긴장했던 외국인들과,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도움을 주려

는 봉사자들의 눈빛이 어우러져 폭염마저 극복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의료봉사단 노다운 씨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은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위도 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란 단원보건소 외국인진료팀장은 "공공기관에서 외국인 무료 진료를 하는 곳은 원곡보건지소가 유일하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연간 6,000건의 진료를 진행했다. 평일 진료가 힘들고,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다.

◇ 문의 : 단원보건소 원곡보건지소(031-481-3605)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단원보건소, 홀로 사는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대학생 동아리와 연계해 '베풀고 섬기며, 정서적 지지'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암 진단을 받고 집에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학생 동아리를 연계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9월부터 실시한다. 재가 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학·

간호·영양 등의 보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와 정서적인 지지를 실시한다.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연구동아리 자원봉사자 학생 20명이 4명씩 5개조로 나눠 단원보건소 방문보건전담인력 1명과 팀을 이뤄 홀로 사는 재가암 어르신 1가구를 돌보게 된다. 방문보건전담인력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간호학과 학생들의 맞춤형 정보를 더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식지 또는 편지 형태로 제공하게되며, 모든 정보의 감수는 해당 간호학과 담당교수와 단원보건소 관리의사(전문)가 맡아 전문성을 더하기로 했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물어볼 지인도 없고, 병원에 방문할 형편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지숙 씨는 "환절기에는 특별히 감기에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입맛이 없더라도 세 끼 식사를 거르지 않아야 하고 약을 먹는 경우 제때 잘 복용하는 것이 어르신들 건강관리의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 문의 : 단원보건소(031-481-3512)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416가족극단 '노란리본'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연극 공연... “공감이 공동체를 만든다”

“누군 돈이 없어 난린데, 누군 갑자기 돈벼락 맞게 생겼네.

산 사람 인생 앞으로 찢지 뭐.”

어제까지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던 직장동료가 무심하게 던진 말은

심장을 도려내듯 아팠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식을 잃고 다시 회사에 돌아왔지만

구내식당에서 혼자 먹는 밥은 주변의 반응만큼 싸늘했다.

- 연극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중

무더웠던 한여름 저녁, 안산문화원 마당에서 열린 사동 마을축제에서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가 공연됐다. 기본적으로 코믹소동극 형식을 띤 연극은 세월호 엄마들의 능청스런 연기까지 더해져 관객석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이와 어른이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유쾌한 공연이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배우로 출연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보니 아프고 쓸쓸한 순간들이 문득문득 찾아왔다. 유가족들이 실제 주변에서 들었거나 SNS에서 퍼졌던 유언비어들을 대사로 연기할 때, 단원과 교복을 입은 딸과 중앙동을 놀러 다니던 예전의 일상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아들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만 먹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던 할아버지의 독백이 나오는 순간 등등.

연극 제목처럼 이웃은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이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존재이기



도 했다. 안산의 연립주택으로 이사 온 할아버지가 겪었던, 이웃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담아낸 연극은 각박한 세상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의를 믿는다. 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옆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한다.

아이와 함께 연극을 관람한 시민은 “상처가 됐던 말을 부모님 입으로 직접 꺼낼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며 “부모 마음은 다 똑같다. 더 많은 안산시민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아픔을 겪은 유가족 분들을 품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란리본’의 김태현 연출자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 중 하나로 우리 ‘이웃’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누군가의 아픔에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문화, 상처를 치유하는데 힘을 모으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극이 끝날 즈음 작은 불빛으로 연결된 노란리본이 무대 배경에 걸렸다. 기쁨이 연결되어 있듯, 슬픔도 연결되어 있었다. 엄마 배우들의 합창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미약한 작은 불빛이 연결돼 희망의 불씨 하나를 지켜낸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안산단원경찰서, 다문화안전경찰센터 새단장 주민의 안전과 행복 위한 소통 창구 ‘기대’



단원구 다문화길 16에 위치한 다문화안전경찰센터가 새단장을 마치고 시민에게 공개됐다. 지난 7월 26일에 열린 개축 행사에는 안산시 각 기관장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식전 행사로는 다문화안전경찰센터 인근에 소재한 용신학교 학습자들의 사물놀이와 흥겨운 민요 공연이 펼쳐졌다. 지역 주민과 어울려 함께 진행한 개축 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

다문화안전경찰센터는 지난 2012년 2월 7일 이 자리에 개소한 이후 다문화특구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자리를 지켜왔지만, 최근 주변 건물에 비해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어 새로이 개축하게 되었다.

단원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다문화특구에 더욱 더 안정된 치안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문화안전경찰센터 개축에 도움을 주신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인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잘 소통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감동을 주는 다문화안전경찰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 온 매무드 씨(40세)는 “안산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채소와 과일을 파는 가게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치안센터가 있어 더욱 든든하다. 한국에 들어온 지 17년 되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법만 잘 지키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축한 다문화안전경찰센터가 다문화 가족은 물론 지역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든든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다.

◇ 문의 : 다문화안전경찰센터(031-494-0125)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안산시, 인구정책 간담회 개최 “기업 내 근무환경 개선 필요”

안산시가 민간지원센터 및 마을공동체 단체원들과 인구정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7년 하반기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내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은 안산시의 인구특성 및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특히 고용률이 가장 큰 변수이며 기업 내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과 양성평등문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구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했다.

◇ 문의 : 안산시정책기획과(031-481-3908)

안산시, 인식표 무료 배부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적극 대처

안산시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중앙 치매센터와 연계하여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제공한다.

인식표는 어르신의 고유번호가 부여돼 실종 시 발견자가 인식표에 기재돼 있는 복지부 희망의 전화 또는 경찰청으로 연락해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해당기관에서 인적사항을 조회해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가족 또는 본인이 안산시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면 약 3주 후 수령이 가능하고, 다리미를 이용해 어르신이 자주 입을 옷·신발 등에 부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부착한 상태로 세탁도 가능하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481-5953), 단원보건소(481-3482)

안산인재육성재단

고등학생 1,041명에게 8억7,200만 원 지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이 2017년도 안산꿈키움장학생으로 고등학생 1,041명을 선발해 장학금 8억7,200만 원을 지원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은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안산시가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재단은 이번에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모범적인 학생에 대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 우수 장학생과 희망 장학생 982명에게 8억2,2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서울반도체(주)에서 ‘저소득층 장학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부한 5,000만 원으로 특별 장학생 59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 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안산시, ‘좋은 일자리’ 아이디어 모은다 지역 맞춤형, 대상별 일자리 창출 방안 ‘공모’

안산시 좋은 일자리 창출

IDEA 공모전

안산시의 좋은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해 참신하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산시는 일자리 창출 정책분야에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산시 좋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안산시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중점 분야는 △청년·여성·중장년·노인·장애인 등의 대상별 일자리 △안산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이다.

접수는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우편, 방문 (접수처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인 경우 마감일까지 소인 날인 된 것에 한해 인정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부서 의견 등의 종합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 100만원(1명), 우수상 2명(각 30만원), 장려상 2명(각 20만원)의 상금이 지급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일자리정책과(031-481-2279)

단원구청·보건소, 9월 새 건물로 이전

넓고 쾌적한 새 청사에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대

단원구청과 보건소가 9월부터 새로 지은 건물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한다. 새 청사는 와~스타디움 옆 '단원구 화랑로 250'에 자리했다. 국·도비 포함 사업비 497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0,918㎡ 연면적 23,176㎡에 구 청사 6층, 보건소 4층 규모로 건립됐다.

단원구청은 2002년 안산시가 구제(區制)를 실시하면서 청사로 사용해왔던 화랑유원지 건너편 단층 가건물을 15년 만에 벗어나 넓고 쾌적한 새 청사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한 형편이었다.

단원구는 344명의 직원들이 행정지원·민원업무·세무 1,2·주민복지·환경위생·도시주택 등 9개 과 40개 담당으로 나뉘어 와동·고잔동·중앙동·호수동·원곡동·백운동·신길동·초지동·선부1,2,3동과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을 담당한다.

1986년 1월 안산시 출범과 더불어 문을 연 단원보건소는 1987년 8월, 현 안산시정신건강관리센터로 사용되는 건



물을 신축해 사용해오다 2001년 새로 지은 2층 규모의 전용 면적 3,317㎡ 현재의 보건소로 이전했다. 안산시가 인구 30만 계획도시에서 70만 거대도시로 팽창하면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공간 확장도 필요해졌다.

2017년 현재 조직은 보건소장 1명, 보건행정과장 1명, 보건행정,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의약관리, 방문보건, 모자건강, 진료검사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동과 원곡동에 각각 보건지소를 두고 있다.

◇ 문의 : 단원구청행정지원과(031-481-6178)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 '통·번역 및 상담사 양성 중급과정' 수료식 '모국어 능력'을 '한국생활 적응 능력'으로 키워낸다



모국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의 '모국어 능력'을 '한국생활 적응 능력'으로 키워내는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의 '통·번역 및 상담사 양성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활용 가능한 실질적 교육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올 3월에 시작된 초급과정에 이어 지난 8월 10일 다문화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수료식을 마친 이번 중급과정은 참가자 80%이상의 출석률과 95%의 수료율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 과정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하루 4시간씩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다문화와 생활고층에 대한 상담 등 모국어와 한국어를 활용한 '외국인상담교육', 생산과 제품설명 등 무역·기계설비 용어를 중심으로 한 '통·번역 교육', 법률, 계약서, 가사·민형사 소송 등의 '법률 교육', 경기도서민금융지원센터의 '금융교육', 단원경찰서의 '기초질서교육' 등 한국생활의 적응을 돕고 재능을 살리며, 보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베트남에서 온 유현정(26세, 반월동) 씨는 "남편의 관심어린 잔소리가 오히려 더 고맙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실질적인 것들을 배우고, 현장에서 체험·활동하는 과정을 통해 더 크게 보고 많이 느낄 수 있게 됐다. '자신의 재능과 꿈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겠다.'는 시야를 얻게 됐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활용해 외국인복지 상담과 통·번역이 필요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고 전했다.

임병권 안산시 다문화정책과장은 "아이를 데리고 와 수업을 들을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과정을 통해 한국생활 적응 뿐 아니라 자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과정 수료 후 다문화지원본부의 상담센터 및 외국인력상담센터, 사회적기업, 병원 등 더 많은 참가자들이 직업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031-481-3737)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안산그리너스FC,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밤 도깨비 그린 피트니스'... 매주 화·목, 호수공원에서



안산그리너스FC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나섰다. 지역 사회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밤 도깨비 그린 피트니스'를 8월 3일(목)부터 시작한 것.

'밤 도깨비 그린 피트니스'는 안산 시민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구단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8시부터 9시까지) 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시행된다.

고잔 신도시 안에 위치한 호수공원은 다양한 체육시설과 공연장, 광장, 갈대습지, 산책로 등이 잘 조성돼 있다. 평소 저녁 시간대면 시민들이 운동을 위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프로그램은 간단한 워밍업을 시작으로 적당한 강도의 스쿼트(하체운동 방법)와 런지(하체강화운동)를 통한 근력·밸런스 운동을 병행한 후, 유산소 운동을 위한 조깅으로 마무리 된다. 이로써 체중감량은 물론,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 체력 증진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안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안산그리너스FC 관계자는 "일일 2회 실시하던 프로그램을 최대 3회까지 늘리며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들이 주로 미취학 아동들과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해왔다면, 이번 프로그램은 중·장년층과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시 체육회 관계자는 "(시민프로축구단과)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이는 곧 흥경기 관중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며, 시민구단 안산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문의 : 안산그리너스FC(031-480-2002)

안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해 교통사고 예방 덕성·별망·선일·외동·진흥 초등학교 주변 보행안전시설 늘려

안산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물을 개선한다. 국비 2억4천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4억8천만 원을 확보해 덕성초·별망초·선일초·외동초·진흥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차로개선, 과속방지턱과 안전펜스 설치, 횡단보도 재도색 등 시설확충에 나섰다.

선일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2015년 어린이 2명이 부상당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곳으로, 단원경찰서가 실시한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민관합동 점검 결과 횡단보도 노면 재도색, 보행자방책 추가 설치, 굽은 내리막길 시인성 확보 등이 제기됐었다.

어린이 1명이 부상당한 와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선으로 돼있는 중앙선의 실선도색이 필요하고,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려 끊임없이 주의를 환기시켜줄 표지판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덕성·별망·진흥초등학교 주변에는 무단횡단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횡단보도에 움직임 감지센서로 작동하는 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다발지점인 신길동 샛별사거리와 와동공원사거리에 회전교차로와 야간조명장치를 설치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어린이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돼 교통사고로 어린이들이 다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교통정책과(031-481-2293)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의 도시농부를 만나다 ②



단원구청 옆에 '초지농장'이 있다.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찾아갔다. 첫 번째 밭에서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짓던 김 모 씨(선부동) 만났다. 밭 둘레에 깻잎이 심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상추와 쪽파 모종을 열 맞춰 심고 있던 중이었다.

"밭에 오면 가슴이 땀 뚝리는 것 같아요."

'찾아 온 사람에게 뭐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밭을 일구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일까. 지난달 다른 밭에서 들었던 "왜 봉다리(봉지의 속어) 안 가져왔어? 아마추어같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밭에 갈 땀 봉투를 꼭 챙기자. 농부들의 마음을 감사히 담아가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도리다.

맨발로 흙을 밟으며 마치 밭과 하나 된 듯 자유로워 보이는 도시농부. 인터뷰를 부탁하자 수줍게 손사래 치던 그는 어느새 밭에서 얻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누고 있었다. 손님에게 내 줄 깻잎을 한 장 한 장 뜯으며...

Q. 언제부터 농사에 관심이 생겼나?

도시에서 살던 중 몸이 안 좋아졌다. 집에서 쉬는데, 우울증도 오고 힘들었다. 원래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인데, 답답했다. 그때 남편이 "재미로 한 번 해봐라"하면서 이 텃밭을 얻어줬다. 지금 2년 째다.

Q. 어떤 작물을 심었나?

고랑에 무 2줄 심으면 한 줄에 6개씩 12개 정도 나

온다. 김장할 때 충분하다. 옆에는 갓이나 쪽파도 심고, 지금은 가을 상추 얻으려고 모종을 심고 있다. 딱히 드릴 건 없고, 깻잎 좀 가져가라. 쌈 싸먹어도 맛있고, 불고기에 넣어 먹으면 향이 정말 좋다.

Q. 농사지으면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나눠 먹는 거. 식구들도 맛있다고 잘 먹는다. 고기 없이 상추만 싸먹어도 맛있다고 한다. 이웃들과 나눠 먹기에 참 좋다. 관리 아저씨도 주고, 교회 분들과 나눠먹는 그 재미!

Q. 밭에서 느끼는 걸 설명한다면

밭에 오면 가슴이 땀 뚝리는 것 같다. 흙을 만지는 것도 좋고, 이렇게 밟는 것도 좋다. 또, 주변에서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원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야기가 잘 통한다. 재밌다.

유가희 명예기자_425170@naver.com

안산청년들의 '월간이슈이슈'

"누구든 구독할 수 있어요"



안산에서 전국의 소식을 모아 전단지로 제작한 후 무료로 전달하는 청년창업팀이 있다. '월간이슈이슈'를 간행하는 '작은목소리'.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발행되는 이슈전단지를 모아 구독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발송하고 있다. 연대가 필요하거나 소식을 알고 싶은 시민단체, 모임, 동아리 등의 전달자 역할이다. 시민단체들은 보통 길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다양한 캠페인으로 시선을 집중시키지만 사실상 큰 효과를 얻지는 못한다. 사람이 많은 곳 일수록 읽히는 것보다 버려지는 양이 훨씬 많다. 그

전단지를 '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처음에 100부로 시작해 5개월이 지난 지금은 4,000부 썩 발행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월간이슈이슈'에는 연대가 필요한 전국의 이슈전단지도 있지만, 이슈 기념물품도 있다. 노란리본이나 배지, 팔찌, 스티커 같은 작은 기념물품들도 인기 한몫하고 있다. 4,000부를 발행하면서 월간에서 격월간으로 변하긴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신청하고 있다.

월간이슈이슈를 만드는 '해와' 씨는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이번 정권교체를 보며 정말 국민들의 큰 힘을 느끼게 됐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잠재된 힘이 결국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구독은 무료며, 카페나 서점, 도서관, 쉼터 등 어떤 공간이든 원하는 만큼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월간이슈이슈' 페이지나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월간이슈이슈 담당자 해와(010-9485-1207)
유가희 명예기자_425170@naver.com

안산청년들, '한발짝 프로젝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나섰다



'한발짝 프로젝트'(이하 한발짝)는 본오동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음식점 입구 턱에 휠체어를 타고도 출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고무와 비슷한 소재로 만들어진 경사로는 따로 시설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탈부착 형태다.

서울예대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김민석 씨(고잔동)와 안산청년들이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강장공장'이 힘을 모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작은 움직임을 시작했다. 지난 8월 5일에는 중앙동 '더플레이그라운드'에서 기금마련 공연을 열어 20명 정도의 관객들과 프로젝트의 의미를 공유했다.

기획자 김민석 씨는 본오동 먹자골목 일대 경사로 설치가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일일이 찾아가 허락을 구했지만 그 중 5군데만 겨우 허락을 받았다. 기금마련 행사로 후원금을 모았고, 5곳에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민석 씨는 "5cm 높이의 턱에 경사로 하나를 설치하는 데 5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며 "이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안산 본오동 지역에만 약 15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음식점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 김민석 씨는 "삶에 있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꿈꾼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한발짝프로젝트 김민석(010-7740-7894)
유가희 명예기자_425170@naver.com



이태성 부곡동장, 안산시 전기자동차 1호 공무원 “환경·경제적 측면 최선의 선택... 세 마리 토끼 잡아요”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한 대안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각광받는 가운데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이태성 동장이 '안산시 전기자동차 1호 공무원'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 없이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차량이 구동되므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태성 동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생각하면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게 놀랍다. 차를 바꿀 시기가 됐다면 이제는 전기차를 선택해야 할 때”라며 이아기를 시작했다.

탄소제로 친환경 도시를 표방하는 안산시는 풍력과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화MTV 친환경 에너지파크,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등 탈 원전의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있다.

안산시 공무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인 이태성 동장은 햇빛발전소 출자 등 환경에 대한 생각을 직접 실천하고 있었으며, ‘차만 바꿔 타도 환경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중형차를 사라는 아내의 권유를 뿌리치고 H사의 전기차를 구입했다.

“초기 구입비용은 부담스럽지만 안산시가 400만원, 환경부가 1,500만원을 지원해준다. 또 전기차 연료비는 휘발유차의 10%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이다.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라며 만족스러워했다. 전기차 전용 번호판에는 연한 파란 바탕에 태극문양, 전기자동차 모형 픽토그램(pictogram, 그림으로 표현한 시설물)과 글자표기(EV: Electric Vehicle)가 배치됐다. 주행 중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차를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만큼 조용하다. 가속력이 좋고 운전 모드 중 스포츠 파워 기능이 있어 속도감도 즐길 수 있다. 다만, 가속 시 배터리 소모가 빠르다. 1회 충전으로 191km 주행이 가능하다. 완속 충전 시 3~4시간, 급속충전은 20~30분이 소요된다. 급속충전은 완속 충전의 80~90% 충전되며 완속 충전 시 출퇴근용으로 4일 이상 운행이 가능하다.

단원구청, 대형마트 등 안산시 내 10개 충전소가 있으나 대형마트 직원도 전기충전소가 있는지 모르고 있을 만큼 아직 전기차에 대한 홍보와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다.

현재 안산은 전기차 구매 시 구매 보조금뿐만 아니라 개인용 완속 충전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아파트에도 충전 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별도의 설치 공간이 필요 없이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에 위치확인 표시(RFID, 무선인식기술 태그)를 붙여 충전하는 방식이다.

◇ 문의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894)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최용신기념관, ‘83인의 시민 관장’ 모집·구성 중 콘텐츠 강화... 상록수공원의 1년, 3년, 10년을 함께 그린다



상록수공원 개선을 앞두고 최용신기념관이 새로운 변화에 적극 참여할 시민 관장을 모집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안산시는 최용신기념관 동편 옹벽을 개선해 통행 공간으로서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여 최용신기념관과 상록수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용신기념관(이하 기념관)은 소설 상록수의 실제 여주인공이자 애국계몽독립운동가 최용신 선생을 기리고자 2007년 11월에 건립한 공립박물관이다.

최용신 선생 서거 83주년을 맞아 기념관은 역사적 발걸음을 함께 할 83명의 시민을 관장으로 초빙, 상록수공원 문화공간조성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7월 15일과 22일, 탐험지도를 들고 주변을 관찰한 후 기념관의 더 나은 모습을 위해 시민 관장들이 제안한 의견 700

개를 51개로 간추렸다.

7월 29일 워크숍에서는 기념관과 상록수공원의 공간적 이해를 돕기 위해 2주간의 의견을 구간별로 구분해 지도 위에 공유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했다. 1년, 3년, 10년 사업으로 꼭 추진되기 바라는 사항에 스티커로 투표한 후 함께 정리해 나갔다. 공원입구 표지판 개선, 스토리텔링을 통한 벽화그리기, 샘골 의미를 담은 음수대, 경사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이 1년 사업으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다. 노후된 펜스 교체, 공원 둘레길 조성, 문화공연 무대 설치 등은 3년 이내에, 우천 시 토사유출 방지 시설, 캐릭터 활용한 공공디자인 시설 등은 10년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다수의 표를 받은 의견에 대한 비전과 연차별 계획에 대한 합의와 평가를 공유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포스트잇에 써 붙인 뒤 서로 격려했다.

한편, 시민 관장으로 참여한 황한솔 어린이(11세)에게는 ‘제일 오래할 관장’이라는 별칭이 붙었으며, 최용신 선생의 제자였던 아버지로부터 강습소에서 부르던 노래를 구전으로 전해 들은 박춘자 어르신은 “최용신 선생의 정신을 잇는 역사적인 자리에 참여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감격스런 얼굴로 임명장을 받았다.

기념관 운영에 함께 할 시민 관장은 83인을 목표로 계속 모집 중이며, 공원조성에 대한 의견이나 추진 과정도 적극 공유해나갈 예정이다.

◇ 문의 : 최용신기념관 (031-481-3040)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대한민국의 희망. 당신은 청소년입니다.”

8월 12일은 UN이 정한 국제청소년의 날이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이상으로 바쁘다. 그만큼 꿈과 이상이 크기 때문이다.
 학생의 본분이라는 ‘공부’만을 고집하다 보면 시대에 뒤쳐지는 이로 몰리기 십상이다.
 안산 청소년들의 활약상을 모았다. 그들은 연극도 하고 연극 배우도 만났으며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연극을 공연하다



“말이 없는 공연이라, 몸짓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해요. 그러면 청소년들의 꿈이 더 크게 들려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마임극 ‘토이 스토리’가 공연됐다. 안산 지역 고등학생들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몸짓과 표정만으로 직접 연기했다. 안산 꿈의 학교 청소년극단 <고등어>의 작품이다. <고등어>는 ‘고등학생의 언어’를 줄인 말로, 진로 탐색을 위해 연기와 연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인

안산 꿈의 학교 청소년극단 <고등어> 몸짓과 표정만으로 표현하는 마임극 ‘토이스토리’ 공연

공간이다. ‘토이스토리’는 학생들이 직접 창작하고 연기하는 개인마임과, 여럿이 호흡을 맞춰 공연하는 단체마임으로 구성됐다. 개인마임에서는 고등학생의 감성으로 쓰인 독특한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감정인간’은 무관심했던 인간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자 그 마음이 전해져 서로를 위로하게 되는 이야기며, ‘사랑과 우정사이’는 두 남학생이 한 여학생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다 다시 우정을 이어가고 또 다시 경쟁하는 이야기다.
 ‘혈액형별 사람들’은 5개 유형의 여학생들이 남자친구를 대하는 방식을 연기해 관객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막과 막 사이 시리즈로 공연된 ‘무인도’는 처음에 실패하다 점차 재미 있게 적응해 가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다뤘다. 단체마임으로 진행된 ‘토이스토리’는 어린 시절을 지켜줬던 장난감 인형의 이야기로 동심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그려냈다.
 “한 번 공연하면 파스 4장은 필수”라는 사회자의 말처럼

<고등어> 단원들은 공연 내내 연습했던 재능을 당당하고 진지하게 펼쳤다.
 ‘토이스토리’를 연출하고 지도한 백승환 씨는 “생소할 수 있는 마임이라는 장르를 흥미롭게 연습하고, 직접 무대에서는 과정을 지켜보면 기쁘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지만 점차 자신감을 회복해서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도 경이롭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 모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경험을 선물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단원 박창현 학생(선부고 2)은 “3월부터 연습했다. 대사가 없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그만큼 집중해서 공감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매력 있다. 배우기는 힘들었지만 무대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 꿈을 찾아 한 발짝 나아 갈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 문의 : 안산문화예술의전당(031-481-4000)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진로를 고민하다



교육법인 ‘꿈터’가 청소년진로프로젝트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첫 주자로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택이아빠’로 이름을 알린 배우 최무성이 무대에 올랐다. 어려서부터 ‘주말의 명화’를 보면서 배우라는 직업에 관심 갖게 된 그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학업에 관심이 없던 그의 삶에 활력이 생

교육법인 ‘꿈터’, 직업인과의 맞춤 토크콘서트 열어 ‘택이아빠’ 배우 최무성... “확신이 섰다면 도전하라”

긴 건 고2 때 연극동아리를 시작한 후였다. 이후 고3 때 연극 무대에 서면서 본격적으로 배우의 꿈을 키워나갔다.
 “배역은 열손가락과 같아요. 나름의 캐릭터가 있고 그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나누지는 않아요.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 삶에 희망을 주는 작품을 할 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보람 있어요.”
 그는 “연극영화과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문학 계열이라면 배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연기하는 배우가 되려면 수많은 인간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독서를 통해 간접경험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며,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청춘을 우울하게 보내지 않기를 강조한다.
 “배우는 화려해 보이지만 고된 직업입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일, 삶의 원동력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지 여부는 자신만이 아는 것. 내 열정과 노력만이 필

요합니다.”라며 “확신이 섰다면 도전하라”고 했다. 또, 오디션에 수없이 떨어지더라도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 뽑는 것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제작의도에 맞지 않았거나 운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니 결과에 치우치지 말고 이 일을 하는 이유와 가치에 대해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조언한다.
 김우진 학생(성포고 1)은 “학교에서 연극동아리를 하고 있지만 걱정도 많았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진정 하고 싶은 일이라면 도전하라, 자존감 높이라’는 말이 많이 와 닿았어요.”라고 했다. ‘꿈터’는 앞으로 매월 안산출신 직업인들 위주로 맞춤 토크콘서트를 이어간다. 이승배 지질학 박사, 정경윤 회계사, 홍미숙 한의사, 가수 겸 작곡가 이해준 등이 대기중이다.
 ◇ 문의 : 꿈터 (010-5359-6799)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벽화를 그리다



노랑 바탕에 알록달록한 집이 늘어난 마을풍경이 정겹다. 동네를 둘러싼 숲은 청록색으로 빛나고, 하늘 위론 세월호를 태운 고래가 별 가루를 뿌리며 마을을 지킨다. '청소년 열정공간99°C'에 오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사동 마을

청소년들이 그린 '사동 마을지도 벽화'

"고래 그림 완성하고 마음이 짝 채워진 느낌이에요"

지도 벽화'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청소년들이 직접 그린 화려한 색감의 마을지도는 한 눈에 봐도 예쁘지만 자세히 보면 더 사랑스럽다. 상록구청, 안산 문화원, 경찰서 등 동네 공공기관들이 재현됐고, 아이들이 자주 다니던 학교, 놀이터, 도서관에는 애정 어린 꽃 장식들로 꾸며졌다. 꼬마 가로등, 전봇대 옆 쓰레기봉투에도 각각의 표정이 담겨있다. 리모델링이 시작된 건 지난 4월, 신민영 학생(성안고2)이 세월호 고래를 그리면서다. 신민영 학생은 수업이 끝나면 거의 매일 공간에 들러 벽화를 그려나갔고, 친구들과 선·후배들까지 함께 참여했다.

신민영 학생은 "고래 그림 완성하고 마음이 짝 채워진 느낌이어서 뭔가 더 도전하고 싶어졌어요. 재밌었고 그림실

력도 꽤 늘었어요."라며 해맑게 웃었다. 김부일 교사는 "민영이가 책임감 있게 벽화를 그리면서 선배들과 동생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활동의 폭도 넓어지고 큰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해낸 일이 한 가지씩 늘어날 때마다 성취감이 생기고, 그만큼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벽화가 완성되던 날 저녁, 아이들끼리 작은 '종 파티'가 있었다. 참여한 아이들은 서로의 이름을 벽화에 쓰면서도 장난기가 넘쳤다. 이름에 갖다 붙인 수식어 하나에도 '까르르' 숨넘어갈 듯 웃어짓는 아이들 머리위로 그림 속 고래가 뿌린 별 가루가 반짝였다.

◇ 문의 : 청소년열정공간99°C(031-416-1318)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운영에 참여하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점핑(Jumping)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안산시 청소년들의 위상을 높였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주관하는 '2017년 전국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최종심사'에서 우수 위원회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점핑(Jumping)'

전국 우수 위원회 선정, "꿈을 향해 도약하라"

'점핑'은 '청소년이 원하는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운영위원이 되어 수련관의 시설 운영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모임으로, 자체 기획한 활동을 실시하거나 홍보하기도 한다. '꿈을 향해 도약하는 청소년'이라는 뜻으로 2005년 1기부터 현재 13기가 활동하고 있다.

심사에서 주목받았던 '점핑'의 활동은 '노동권'에 대한 정책토론회였다. 토론회 주제 선정부터 섭외, 운영방식, 간식 준비까지 모두 청소년의 손으로 마쳤다. 또한 진로탐색을 위해 각자 주변의 선배, 선생님, 지역 사회 인물 등의 인적 자원을 직접 섭외하기도 했으며, 다른 동아리들과 연계해 청소년들의 의견과 사연을 모은 후 기관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의 하태호 담당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스스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의견을 이야기하는 활동은 청소년의 사회 참여 역량을 올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주저하며 망설였던 청소년들이 서서히 하나의 주제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변화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13기 박은지 위원장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공고는 매년 12월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ansanyouthjumping/)에 게시된다.

◇ 문의 :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031-412-1723)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권리를 지키다



방향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이 많다. 그러나 노동인권교육을 받아 본 적도 없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도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이 많아 생애 첫 노동이 억울하고 부당한 경험으로 남는 사례가 많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청소년이 일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 모집, "우리 권리 우리가 지켜요"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찾아보고 청소년 스스로 노동인권 보호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산시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를 모집하고 첫 활동에 나섰다. 센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노동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참여형 활동과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권리교육, 노동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맞게 최저임금으로 한 달 생계를 꾸려보는 시간, 참여 학생들은 "애들 학원비에, 공과금, 주말에는 외식도 하고 싶고 웃도 사고 싶은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려니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기본교육을 마친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들은 8월 첫 활동으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만나다>를 진행했다. 윤주향(디미고 1) 학생은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권리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산시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는 8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씩 탐방, 노동관련 인물 인터뷰, 또래 청소년,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노동인권 보호캠페인 등을 전개한 후 11월 활동보고회로 2017년 활동을 마무리한다.

◇ 문의 :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031-487-487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만 12세 이하를 위한 보건·복지·교육 통합 서비스 제공



한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 건강,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교육 기회 등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환경과 공정한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다.

드림스타트는 어려운 가정의 임신부 및 만12세 이하 아동과 가족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과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 우선적인 대상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및 조손가정, 학대 피해 아동이지만 아동보호기관 및 통장의 의뢰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의 욕구와 특징, 양육환경을 우선 파악한다.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와 지역 자원을 연결해 준다.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다방면의 서비스

와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시 담당자는 “직접 현금이 제공되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꼭 필요한 분들이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편하게 신청하고, 관계자들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견하면 의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에는 상록구와 단원구 2개의 드림스타트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단원드림스타트는 단원구청 공사로 상록드림센터에 임시 이전한 상태다.

사례이야기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삶의 희망

현재 단원구·상록구 드림스타트에는 총 14명의 보육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한 명당 60명의 아이들을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겪는 환경적 어려움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만성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한 가정의 작은 변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안산 드림스타트는 지난 5년 동안 연속해서 사례관리 수기 실무자부문 최우수상을 받고 있다.

“4,5학년 중 한글을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우물쭈물하던 아이가 수업을 받고 나서 글을 읽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이와 함께 기뻐하는 담당 복지사들의 말이다.



상록드림스타트 윤정민 팀장은 2009년에 만났던 아이를 소개했다. “그때 어머니 혼자 4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정리정돈이나 청소가 제대로 안 돼 굉장히 열악했어요. 또 그 아이만 딸이고 나머지 3명은 모두 아들이어서 소외감을 많이 느꼈죠. 그런데 지금은 바르게 성장해서 대학교도 가고 센터에 봉사활동까지 오니 많이 기뻐하더라고요.”

단원드림스타트 김지영 팀장은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트럼펫을 처음 접했던 아이가 재능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줬다. “최근 그 친구가 안양예고에 입학했는데, 예전에 트럼펫 가르쳐주셨던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드림스타트를 통해 트럼펫에 흥미를 느끼고 꿈을 꾸게 된 거 같아요.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 문의 : 상록드림스타트(031-419-4952)
단원드림스타트(031-481-3050)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봉사모임 '따숲네'

“아이들의 종다는 말 한마디에 힘든 것도 다 사라져요”



“책꽂이를 쪽 놓고 애들 짐을 여기에 놓으면 방 정리가 될 거 같고, 입구 벽에 선반을 길게 달면 화장지나 잡동사니도 다 둘릴 수 있을 거예요. 빨래 건조대를 달면 비오는 날도 편하실 거예요.”

봉사모임 '따숲네(회장 정은철)'가 주택환경개선사업 사업답사를 위해 대상자 집을 처음 방문한 날, 아이 엄마

는 설명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방2개에 작은 주방 겸 거실, 다섯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은 집이 정리까지 안 돼 있다 보니, 가족들이 살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2주 후 '따숲네'의 손길이 닿으면 집안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잡동사니들이 깨끗이 정리된다. 작은 변화지만 새로운 시작을 꿈 꿀 수 있는 소중한 계기다.

'따숲네'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에서 뜻 있는 회원들이 함께 활동하는 봉사모임이다. 올해 2년째로,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이웃들의 집을 수리하거나 정리해주는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대부분 회원들이 직장을 다니지만 목공, 전기수리 같은 손재주부터 정리정돈까지 자기가 가진 재능을 활용한다.

원래 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해왔던 따숲네는 올해부터 드림스타트와 연계돼 아이들이 사는 집을 청소하

고 수리한다. 정은철 회장은 “어르신들 집을 청소하다가 한번은 아이가 있는 집을 가게 됐어요. 방이 두 개였지만 부부 방도 따로 없고, 거의 애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 집이 딸만 둘이었는데, 애들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핑크색 도배도 하고, 책상도 넣어주고, 5단 서랍장도 페인트칠 해줬어요. 나란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주변에 도와주고 함께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을 거 같아서, 이왕이면 아이들 가정을 선정하고 있어요.”

시 담당자는 “이 사업은 아이들 건강문제도 해결하고, 아이들 공간을 따로 마련해 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익하다.”며 “자체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가정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중학생 영어뮤지컬 제작·발표**

권했다. 이번 영어뮤지컬 제작은 안산의 중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고 자신감 또한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지난 5월 공문을 통해 본오중, 석호중, 해양중 등으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다. 7월 15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목적과 일정, 대본 배정 등을 마쳤다.

학생들은 오는 9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90분 씩 연습한 후 9일 오후 2시 무대에 작품을 올리게 된다.

본오중 팀 7명은 고등학생들의 오디션 참여를 그린 '고등학교 뮤지컬(High School Musical)'을 공연하며, 12명이 참여한 석호중은 A, B팀으로 나눠 스웨덴 출신 인기그룹 아바(ABBA)의 노래들을 모은 뮤지컬 '맘미아'와 '페임(Fame)'을 준비했다. 해양중 학교도 6명의 팀원이 '페임'을 준비한다.

미디어라이브러리 관계자는 "안산의 중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 실력을 쌓고, 무대경험으로 자신감이 넘치길 기대한다."며 "9일 공연에 많은 분들이 관람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라이브러리는 안산의 대표 영어도서관으로서 고등학생이 멘토가 되어 초등학생 멘티에게 영어책을 읽어주는 '리딩 버디(Reading Buddy)'와 화정영어마을과 연계한 성인 회화 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문 의 :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031-481-3890)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쉽고 재미있게 뮤지컬 만들며 영어를 배워요 ”

“Remember! Remember! Remember! I'm gonna learn how to fly HIGH!(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하늘 높이 나는 법을 배울 거야!)” 1980년 미국의 한 예술학교 학생들의 꿈과 사랑을 그린 뮤지컬 '페임(Fame, 명성)'의 주제곡이 새어나왔다.

옛되지만 원어인 못지않은 발음의 노랫소리는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가 진행하는 영어 뮤지컬 제작·발표 연습 현장의 소리다. 본오중, 석호중, 해양중 학생 25명은 영어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암기하고, 영어연극 전문지도강사로부터 보고 듣고 말하는 연기의 기본을 배웠다.

오승은 학생(본오중) “이번 여름방학은 특별하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얻고 어휘력도 늘었다.”고 했다. 배준환 학생(해양중) “연기가 무척 재밌고 참여하길 잘했다.”며 “작품을 한다는 의지만으로도 영어실력이 좋아지니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하라.”고

별망중학교, 토론회 & 사제 산행

“우리가 입을 교복 우리 의견도 반영해주세요!”



“학생들이 스스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자체가 매우 기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별망중학교 대토론회에 참가한 임유나 학생의 소감이다.

별망중은 '체육복과 생활복 착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가졌다. 전체 교사,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가 함께 모여 소통·나눔·성장을 위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결과도 나왔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요즘처럼 너무 더운 때에는 불편한 생활복 대신 체육복을 입을 수 있게 해달라”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고, 학교가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

“학년별, 남녀별로 통일해 입자”는 의견도 나왔다. 단, 생활복의 색깔과 소재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별망중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는 '사제 동행' 산행도 진행,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학교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각 학년 협의회를 거쳐 선정했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외에도 학생회 임원들과 산행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함께 했으며, 수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학교 일과가 모두 끝난 후 진행됐다.

산행에 참여한 한 학생은 “산행을 통하여 친구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었고, 선생님들과 평소 하지 못했던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들께 상담을 요청해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문 의 : 별망중학교(031-482-3263)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삼일초등학교, 4학년 대상 '초경 교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변화예요”



영양공급이 좋아지면서 초경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초등 4학년이나 5학년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초경을 시작한다. 어른이 되어가는 신체에 비해 마음은 아직 어린 이들에게 사전 지식이나

준비 없이 맞는 초경은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삼일초등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심신의 변화에 잘 대처해 건강하고 밝은 마음으로 소녀시대를 맞이하도록 매년 초경 교실을 열어 두고 있다. 지난 7월 20일에는 4학년 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건강한 소녀시대를 위해 준비할 것과 위생용품 사용·관리·뒤처리법 등을 알아봤다. 김다영 학생은 “초경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아름다운 변화이고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사춘기에는 성호르몬의 증가로 신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 부모님보다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좋을 수 있고,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며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된다. 이유 없이 작은 일에 짜증이 나기도 하며, 반항심과 함께 자신의 모습이 싫어 우울해지기도 한다.

임은정 보건교사는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성장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한다.”며 “부모님,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영양이 풍부한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우정을 쌓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운주 교장은 “아이들이 초경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로서 교육과 위생용품을 마련했다.”며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겨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4학년 여학생들은 학교예산으로 마련한 위생용품을 크기별로 한 세트씩 선물로 받았다.

◇ 문 의 : 삼일초등학교(031-487-6143)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중앙·감골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풍성



인문학의 대중화를 목표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017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전국 320개 도서관과 함께 중앙·감골·관산도서관이 선정돼 시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길 위의 인문학'은 인문학 강연과 탐방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중앙도서관은 '역사 속 인문학! 조선이 버린 천재들', 감골도서관은 '길 위에서 근대문학을 읽다'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중앙, '역사 속 인문학! 조선이 버린 천재들'
2017 안산의 책「조선이 버린 천재들」을 주제로 선정

해, 조선시대에 버림받았던 혁명가들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동시에 나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역사'와 '인문학'이 융합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9월 8일부터 '역사, 혁명을 꿈꾸다'를 주제로 혁명을 설계한 정도전, 윤희에 대해 알아본 후 윤현궁과 경인미술관을 탐방한다. 이어 9월 20일부터는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다'를 주제로 최경석 EBS 강사가 대동법을 주장한 김육, 조선의 실학자 박제가에 대한 강연 후 실학박물관, 단산유적지를 탐방할 계획이다.

10월 25일에는 강연과 탐방에 참여한 시민과 후속모임으로 '역사, 끝없는 대화'에 대해 역사토론을 갖는다.

감골, '길 위에서 근대문학을 읽다'
소설 '상록수'의 배경 속 '안산'을 살펴보고, 나아가 근대문학

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8월에는 초등학교 대상 독서프로그램을 열고 최용신기념관과 성호기념관을 탐방해 우리 고장의 역사를 배우고 자부심을 키웠다. 9월 13일부터는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인, 윤동주를 만나다'가 진행된다. 문학평론가 김응교 교수가 조국의 현실을 고민한 윤동주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강연 후 윤동주문학관과 시인의 언덕을 찾은 예정이다. 10월 11일부터는 '김유정의 해학과 토속을 찾다'라는 주제로 정석화 독서운동가의 강연 후 김유정문학촌 등을 탐방한다. 이후 11월 1일에는 '문학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제로 후속모임을 마련한다.

◇문의 : 중앙도서관 (031-481-3864)
감골도서관 (031-481-3704)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단원미술관, '즐거운 인문학' 강좌 개설

단원·표암·성호와 함께 했던 옛이야기



단원미술관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유쾌하고 재미있는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문학 강화를 마련했다. 단원 김홍도를 중심으로 안산의 역사 인물인 표암 강세황, 성호 이익과 함께 했던 옛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올해는 단원미술관 기획전, '단원 한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요일 하루, 미술관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인문학 여름 강좌로 지난 7월 26일에는 성호 이익의 안산에서의 생활과 성호학파 학자에 대한 강좌가 열렸으며, 8월 9일에는 단원 김홍도의 독창성과 한국현대미술에 대한 강좌가 진행됐다.

인문학 강화를 재밌게 즐기기 위해 미리 신청한 참가자

들은 도슨트(docent, 해설사)와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단원 한상(건강 샌드위치와 커피 음료)'을 즐기는 등 이벤트의 시간을 가졌다.

수암동에서 온 60대 주부는 "미술관과 인접한 노적봉 산책도 하고 그림도 보고 유익한 강화를 들으니 더욱 좋다. 앞으로도 이런 강좌가 많이 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문학 가을 나들이 강좌도 3회 마련돼 있다. 선착순으로 60명을 접수받고 있으며, '단원 한상' 프로그램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참가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현장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8)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날짜	시간	강의주제	강사
10월 18일(수)	14:00~16:00	단원미술관 소장작품을 중심으로	진준현 (서울대박물관 학예연구원)
10월 25일(수)	14:00~16:00	풍속화란 무엇인가?	이중희 (前 계명대학교 교수, 영남미술학회 회장)
11월 1일(수)	14:00~16:00	먹물의 문기(文氣) '강세황과 이인상의 세계'	손철주 (미술평론가, 사단법인 우리문화사랑 운영위원)

반월동 반달공원에 공공도서관 건립

오는 9월 착공, 2018년 7월 준공 예정



반월동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들어서있고 수원, 군포, 화성 등과 인접하며 산업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잇는 사통팔달로 안산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 생활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서해, 대림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며 인구유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월동 전체면적의 94.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동 전체가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모습이다. 여유롭고 아늑한 운치는 있지만 도심과 떨어져 지역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 또한 이어졌다.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에 따라 반월동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됨으로써 주민들이 무척 반기고 있다.

반월동에는 2008년 문을 연 반월동햇빛작은도서관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열람실이 따로 없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번에 건립될 공공도서관은 지상 2층 규모로 문화교실, 문헌자료실, 열람실을 갖추게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접근성이 다소 어려운 반월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여 평등한 지식정보 서비스 확보 및 다양한 교육 문화공간으로서 중추적 역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월동 공공도서관은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7월 준공 예정이다.

문의: 안산시중앙도서관(031-481-2707)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제31회 별망성예술제

‘재미있는 예술축제’ 슬로건… 9월22일부터 사흘 동안 열려

안산의 대표 문화축제인 ‘별망성예술제’가 올해로 31회를 맞아 9월22일부터 24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초지동 별망성지에서 열린다.

1987년 처음 시작했으며 올해는 ‘재미있는 예술축제’를 슬로건으로 연극, 무용, 음악, 백일장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다. 개막작으로는 별망성의 역사적 상징성을 담아 민초들의 삶을 해학으로 풀어낸 창작극 ‘별망뎐’이 무대에 오른다. 시나리오, 연출, 무대제작까지 안산예총 회원들이 맡았다.

초지동 별망성지에서는 예술제를 알리는 큰북공연과 옛 군사들의 ‘툭아보기(살살이 살펴보기)’가 재현된다.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별망성지 탐방 코스와 해설도 마련됐다. 화려하고 장엄한 궁중한복을 선보이는 패션쇼가 개막 전 공연으로 펼쳐지고, 개막공연 이후 이어지는 불꽃쇼가 축제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시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대폭 선보인다. 시민장기자랑, 한복입고 조선시대 별망성 사람되어보기, 주막거리 마당극 체험하기와 소원을 담은 성 쌓기, 느리게 가는 편지 쓰기, 물놀이, 푸짐한 선물이 주어지는 건강 게릴라 경진 등이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백일장, 삼행시 짓기, 그리기 대회, 국제댄스경연대회, 무용경연대회, 서예 문인화 회화 대회, 문인시화전, 사진전, 별망성공쿠르 수상 음악회, 시



민합창제, 마술쇼, 영화포스터전, 버스킹공연, 국악기체험, 무료사진촬영, 황포돛배 포토존 설치, 투창던지기, 세계음식거리도 마련되며 마지막 공연 ‘티움’으로 막을 내린다.

◇문 의 : 안산예총(031-485-3844)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경기도미술관 ‘크래프트 클라이맥스’

현대공예 전시회, 현대 장인들의 공예품에 홀리다

만드는 사람의 혼이 담긴 듯 오래도록 바라보게 되는 물건들이 있다. 단정하고 검박한(검소하고 소박한) 백자, 신비하게 투명한 빛을 내는 청자,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직사각형 의자, 작은 조각까지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장신구 등.

장인들이 오랜 정성으로 버려낸 공예품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이 깃든다. 사람 손으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영역에 있는 것 같은, 마치 신의 손길에 닿은 것처럼 한참이나 낯 놓고 쳐다보게 된다.

오는 9월 17일까지 경기도미술관에서 열리는 ‘크래프트 클라이맥스 : 경기 현대공예2017전’은 공예품들의 향연을 맛볼 수 있는 기회다. 엄선된 경기도 내 현대공예가 32명의 목공, 섬유, 금속, 도자, 유리공예 분야 240여점이 전시된다. 전통 미의식을 담은 작품과 함께 이를 현대적으로 변용하거나 혼성·융합한 작품도 소개돼, 다양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전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1부는 경기도 각 시·군 공예가들의 집과 공방이 있는 위치와 19세기 수공업 장면을 살펴볼 수 있다. 2부는 쓰임과 멋,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공예 작품을 전시하며, 3부는 실제로 사람이 사는 집에서 공예작품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보여준다. 4부에선 31개 공방을 직접 방문해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 그리고 공예가의 필수적인 작업실 도구들도 전시했다. 공예품 전시뿐 아니라 공예가들의 작업과정과 인터뷰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장래 공예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꼼꼼히 짚어보면 좋을 전시다.

이번 전시는 실험적인 재료와 표현방법을 사용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부터 뛰어난 테크닉으로 수준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공예 작품까지 볼 수 있다. 조용원 작가는 목가구에 물결모양 패턴을 입혀 방향과 조명에 따라



석양이나 달빛과 같은 미묘한 변화를 느끼도록 했고, 박홍구 작가는 오동나무를 태워 무늬를 내는 방식으로 가구와 장식물에 추상미를 더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안성만 작가의 3D프린터를 활용한 도예작품, 12cm 판유리를 그라인더로 갈아 부조를 조각한 이상민 작가의 작품도 눈에 띈다. 이밖에도 각 분야의 장인들이 만든 백자, 청자, 옹기 등 다양한 도예 작품의 부드럽고 은근한 매력에 흠뻑 취해볼 수 있다.

◇문 의 :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단원미술관, ‘안산아회安山雅會, 풍류를 즐기다’

안산에서 재현되는 조선시대 화가들의 모임

단원미술관이 오는 9월 8일부터 ‘안산아회安山雅會, 풍류를 즐기다’를 개최한다. 단원 김홍도는 물론 그와 교류(交遊)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진본 작품들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다.

섹션1, ‘화(畵), 들여다보다’에서는 18세기 영·정조시대 안산에서 서로 교류했던 표암 강세황, 단원 김홍도, 현재 심사정, 호생관 최복, 연객 허필이 그려져 있는 ‘균와아집도 筠窩雅集圖’를 소개하고 단원 김홍도, 표암 강세황(연객 허필 평), 공원 김양기의 진본 작품 및 단원 김홍도의 영인본 작품을 소개한다.

섹션2, ‘회(會, 모이다)’에서는 ‘균와아집도’에 나오는 인물들의 교류관계와 그들이 합작한 작품을 소개하면서 스토리를 듣는 공간으로 만든다. ‘연객평화첩’, ‘제가화첩’, ‘표현연화첩’과 그들 관계의 기록들을 통해 조선시대 안산에서 활동했던 문인과 화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오는 9월 8일 개막해 상설로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안내해설은 평일과 주말 동일하게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운영되고, 정해진 시간 외 안내해설을 원할 경우는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아회(雅畵을 아/우아할 아, 會모일 회) : 문인과 화가들의



사적인 모임을 일컬음.

◇문 의 : 단원미술관(031-481-0509)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광복 72주년 기념, 평화콘서트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이 선사한 감동의 무대



광복 72주년을 기념하는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 초청 평화의콘서트가 8월 15일 저녁 7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열렸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진행되었으며 '베사메무초' 등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스페인음악과 '세노야', '그리운 금강산' 등 우리음악으로 채워졌다. 푸른 눈의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우리음악을 부

르는 모습에 감격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를 위해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은 특별히 단원을 구성했다.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유럽인들에게 알리고자 임재식 지휘자가 1999년 창단한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은 스페인과 유럽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합창단으로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 모두가 스페인 사람이다. 지휘자는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민요와 가곡을 무대에 올리며 스페인과 한국의 문화교류 가교 역할과 민관외교사절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

공연을 지켜보던 중년의 김채인(고잔동) 씨는 "식민지 시절 고초를 겪었을 선조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광복을 맞이했지만 아직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 역시 마음 아프다. 더구나 외국인이 이렇게 정확한

발음으로 가슴을 파고드는 우리의 노래를 불러주어 감격스러워 울컥했다."고 전했다.

임재식 지휘자는 "현재 한반도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지만 평화의 물결을 기대한다. 잊혀져가는 우리의 노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며 공연장을 메운 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공연을 주최한 안산문화원 김봉식 원장은 "오늘 공연을 통해 나라를 넘어, 세대를 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래 부르며 가슴속에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단과 객석 시민들이 함께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 문의 : 안산문화예술의전당(031-481-400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정문규미술관, '한국미술의 거장전 시리즈Ⅳ'

박석호展, 서민 애환 담긴 대표작 & 미발표작 80여 점 전시

정문규미술관이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국미술의 거장전 시리즈Ⅳ - 박석호展'을 연다.

박석호 화백(1919~1994)은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다. 가난하지만 선비적 기풍이 강한 가문의 4대 독자 부친 밑에서 유년기와 성장기를 보냈다. 홍대에 입학한 이후에는 수화 김환기, 이봉상, 유영국, 남관 등 한국미술계의 거목이라 할 수 있는 선배 화가들과 교류하며 작품세계의 지평을 넓혀 나갔다.

한국 서양화 화단이 사실과 추상이라는 미술양식의 이분법적 형식에 양분되어 갈 때, 박 화백의 당시 그림은 사실과 추상을 동시에 아우르는 중용적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

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특유의 조형 어법으로 화폭에 담아냈으며 서구미술의 전통적 사실주의가 아닌 새로운 구상법에 의하여 자기만의 독자적 공간성을 만들어 내곤 한 것이다.

"박석호의 작품에서 그의 새롭고 독자적인 공간성이란, 그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의 개별적인 심성과 감수성에 기초하여 자연의 대상적 세계나 사물의 형상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현대회화 초기에 야수파가 도달한 강렬한 표현적 충동이나 에너지 같은 것이 담겨 있다."는 미술평론가 김인환의 말처럼 그의 회화는 그 자신만의 심중에서 울려 퍼지는 마음의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올 가을 박석호 화백을 회고하는 작품전에는 그가 남긴 몇 안 되는 초기 누드 작품부터 서민의 애환이 담긴 작품들과 함께 가족이 소장하고 있던 미공개 유작 80여 점이 공개된다. 아들인 박래헌 명장의 도예작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 문의 : 정문규미술관 (032-881-2753)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경기창작센터 창의예술체험 프로그램②

성인대상 창의연수

'예술로 차차차(Cha! Cha! Cha!)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창작센터 내 입주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과 연계한 참신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성인을 위한 100% 맞춤형 교육으로 회화, 조형, 설치미술, 사진, 음악,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구성됐다. 창의적 가능성을 찾는 찬스(Chance), 새로운 나를 만나는 챌린지(Challenge), 예술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는 체인지(Change) 등 크게 3C로 분류·구성했다.

'엉뚱한 상상력', '컬러유희', '가구&조형디자인', '작가와 의 대화', '나도 감독이다', '나와 나 연결해서 생각하기',

'나의 감성 안테나', '메이드 인 마인드(Made in Mind)', '해솔길에서 나를 만나기' 등은 당일 프로그램이며, 그 외 1박2일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직장생활을 포함해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창의적인 시각을 갖고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이는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며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기발한 상상력을 배우고 직접 작품 활동에 참여해 유연한 사고를 길러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의연수에 참가한 시민은



"요즘은 창의력이 필요한 때인데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키울 수 있었다. 또한 직장생활 내 힘들고 불편했던 점을 공유하고 해소할 수 있어 더욱 좋았다. 적극적으로 변하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 문의 : 경기창작센터(032-890-4821)
이선희 명예기자_jiamyou70@hanmail.net



안산환경재단

게릴라 가드닝, 방치된 공간의 아름다운 변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단원구 화랑유원지와 고잔동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사전 홍보 프로그램으로 '게

릴라 가드닝(guerrilla gardening)'을 실시했다.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다.

게릴라 가드닝이란 방치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되는 공간에 대해 오용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환경개선 등을 위해 정원으로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안산의 '마스터 가드너(master gardener)'들이 방치 공간의 아름다운 변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안산 마스터 가드너들은 "쓰레기 더미로 눈살이 찌푸려지던 공간이 예쁜 미니정원으로 바뀌고 삭막하던 공간이 화사하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며 "더운 날씨지만 주민들의 호응에 힘이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안산환경재단은 안산지역 내 삭막하거나 방치된 공간을 우선 선정하여 게릴라 가드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동네 가드너 양성, 허브정원 이야기 등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전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문의 : 안산환경재단(031-599-9405)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건설현장 '떨어짐' 재해예방 안전의식 캠페인 전개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지사장 박현근, 이하 안전보건공단)가 안전점검 생활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 8월 16일 오후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건설재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 습관화와 떨어짐 재해예방을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산업단지공단, 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건설업 사고성 사망사고 재해자 220명 중 63%는 떨어짐 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떨어짐 재해에 취약한 1,000여 곳을 선정해 불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현장별 취약점을 점검하고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중점 점검사항(작업난간,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 방지망 설치)을 사전에 홍보하고 예방대책 기술자료 등을 보급했다.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시스템 비계(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시설물)를 설치한 경우 기획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현근 지사장은 "떨어짐 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이 위험요소를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031-481-7564)

국재해예방관리원과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떨어짐 재해 기획감독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성공회대

'노동, 역사를 만나다' 주제로 노동대학 개최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박재철)가 주관하고 성공회대학교가 후원하는 '2017 안산노동대학'이 수강생을 모집한다. 2013년 시작해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는 안산노동대학은 역사, 경제, 문화, 세계의 노동을 순서로 9월~11월까지 주1회 총 10강으로 진행된다. 올해 주제는 '세계의 노동'이다. 지난해에는 2013년 입학해 총 4년의 과정을 모두 수료한 졸업생도 배출했다. 졸업생 A씨는 "낮에는 아무생각 없이 일만 하다가도 노동대학이 열리는 수요일 저녁이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강좌를 들었다. 일하면서 4년이나 즐겁게 공부한 스스로가 자랑스

노동대학 수강생은 20대 청년부터 60대까지 연령도 다양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공단노동자, 교사, 공무원, 요양보호사, 자영업자 등 직업도 다양하다. 매년 모집정원 60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강생이 신청하여 조를 구성하는데 애를 먹기도 하지만 신청자 모두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과정은 9월 6일(수) 저녁 7시 김민식 MBC 드라마국 PD의 입학특강 <자유로운 도전>으로 시작하여 11월 15일(수) 하종강 안산노동대학 학장의 수료특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일곱 번째 강의가 열리는 10월 21일, 22일은 통일기행 일인지인 철원과 연천으로 떠나는 역사기행이 기다린다. 수강료는 10만원이며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수강료 50%가 감면된다.

박재철 센터장은 "안산·시흥스마트허브를 기반으로 한 공단도시 안산에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안산노동대학'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문의 :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031-487-487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럽다."며 "졸업은 했지만 매년 새로운 강사로 강좌가 진행되니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수강신청을 했다."고 했다.

고려인대회 '함께 부르는 고려아리랑' 열린다

강제이주 80년, 특별법 개정과 정착법 제정 추진



고려인강제이주 80년을 맞아 고려인특별법 개정과 고려인 정착법 제정을 위한 고려인대회 '함께 부르는 고려아리랑' 이 오는 9월 17일(일) 오후 3시부터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

지야외 대극장에서 열린다. '고려인강제이주 80년 고려인대회 공동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주최·주관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5천여 명을 포함 7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고려인만민회의'가 진행되며, 6시부터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이어 기념공연인 '함께 부르는 고려아리랑'이 펼쳐지며 이후에는 대동놀이로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고려인 강제 이주와 유라시아 역사체험, 연해주 독립운동사, 고려인·아시아·한국 음식문화체험 등 풍성하다. 추진위의 김종천 사무국장은 "강제 이주가 자행된 1937년에는 나라다운 나라가 없었고 고국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고려인 후손들만큼은 우리가 안아주어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이 뭉쳐 공동체를 형성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산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총 1만2천여 명 정도로 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그 중 18세 미만 아이들은 500명이 넘고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자진 출국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종천 국장은 "사실상 강제 추방이자 가족과의 생이별"이라며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인은 옛 소련연방 지역에 살면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한민족 동포를 말하며, 올해는 블라디보스토크 등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지 80년이 되는 해다. 한편, 추진위는 고려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행사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문 의 : 9.17 고려인대회 사무국(031-493-7053)

안산상록경찰서 &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

지역 주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체감안전 요소를 파악, 치안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경찰서와 대학이 함께 나섰다. 안산상록경찰서(서장 이석권)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경상대학(학장 박광호)은 8월 4일 업무 협약을 맺고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안산상록경찰서

서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석권 서장과 박광호 학장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양대학교는 경상대학 학부 하반기 연구과제로 안산 지역주민들이 중시하는 체감안전 요소를 파악, 안산상록경찰서에 제공한다. 또한 안산상록경찰서는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



이 느끼는 가장 취약한 요소부터 단계적으로 접근, 고객만족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 의 : 안산상록경찰서생활안전계(031-8040-2346)

안산시 25개동 마을상상추진단 워크숍

우리 동네 10년 후 모습을 상상하다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25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마을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특성을 분석해 미래계획이 담긴 종합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시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추진하는 주민공동체 사업이다. 첫 번째 발걸음은 안산시 25개동 전체를 돌며 진행된 상상톡톡 워크숍(이하 상상톡)이다.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

여 동네의 특성을 찾아내고,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을 상상하며 비전을 만들어 내는 상상톡은 지난 5월 일동에서 시작돼 25개동 전체를 순회했다. 이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마을비전으로 최종 선정됐다. '문화·어울림이 함께하는 벚꽃마을 부곡동', '천년의 역사 안산의 뿌리 수암봉 정기 담은 안산동', '젊음과 꿈이 함께하는 낭만도시 중앙동', '세대공간, 공존을 꿈꾸는 푸른 숲사동' 등 주민들이 선정한 마을비전에는 각 동의 특징과 색깔이 그대로 담겨있다. 지난 7월 22일에는 25개동 마을상상추진단 전체 워크숍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열렸다. 1부에선 각 동의 마을비전을 함께 공유했으며, 2부에선 모바일과 보드게임을 결합해 가상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경험하는 '모막(momak) 워크숍'이 진행됐다. 25개동 전체 마을활동가들

이 한 자리에 모여, 지도퍼포먼스, 춤, 보드게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즐기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김명호 사무국장은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주체들을 발굴해 주민들이 마을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고, 그것이 상상에 그치지 않고 마을계획, 마을재생 단계까지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25개동의 마을비전은 오는 10월 18~20일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안산시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막식 때 마을비전선포식으로 발표하게 된다. 또, 시는 실현 가능성이 크고 마을 발전에 도움 될 수 있는 마을비전을 기획공모사업으로 선정해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 의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031-409-7960)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안산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 체제 유지

임시회 열어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 조례’ 수정 의결

평생학습원은 기획행정위

산업지원본부는 문화복지위로 소관 변경

안산시의회가 8월 10일 제240회 임시회를 열어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의회는 이날 오전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안)’과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각각 실시한 뒤, 표결을 통해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4개 체제로 유지됐다.

또 개정안에서 시 산업지원본부를 기획행정위원회, 시 평생학습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편재했던 것을, 수

정안에서는 평생학습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산업지원본부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했다.

의회는 아울러 개정안 부칙의 일부 조항도 수정안에서 삭제 처리했다. 이민근 의장은 폐회사에서 “안산시의회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시의회가 하나 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 양보와 협력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안산희망발전소’

청년기본조례 제정 간담회... 제도적 기반 마련 ‘박차’

‘안산청년정책포럼’에서 주최한

‘청년특강’에도 참석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희망발전소’(연구책임의원 전준호) 소속 의원들이 8월 9일 안산시 청년 정책의 제도적 근간이 될 청년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후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산희망발전소 소속 전준호, 김동수, 나정숙, 박은경 시의원과 안산시 청년정책계 관계자들, 지역 청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간담회는 연구모임이 제안해 사전에 공유한 조례 초안에 대해 각 조문별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기본조례는 향후 안산시에서 추진할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청년의 권익증진과 참여확대를 위한 기본 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청년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

하고 청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청년단체 관계자들은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정착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분야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소통의 창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의원들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례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내 뜻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준호 연구책임의원은 “청년정책의 실행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년에 대한 투자가 곧 안산의 미래인 만큼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청년정책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7월 22일, 안산희망발전소 소속 의원들은 안산 청년정책포럼에서 주최하는 ‘청년특강’에 참석했다.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청년기본법’ 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희망발전소’ 소속 의원들이 7월 22일 열린 청년특강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사로 나와 “현시대에 청년들을 지지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청년당사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복지정책 및 복지시설확충개발 연구회’

그룹홈연합회 ·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방문, 운영실태 파악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복지정책 및 복지시설확충개발 연구회’가 복지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복지정책 및 복지시설 확충개발 연구회’(연구책임의원 홍순목, 이하 복지정책연

구회)가 8월 7일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 파악과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복지정책연구회는 이날 연구단체 자문인 김태한 사회복지과 교수(안산대)와 함께 단원구 와동 안산시그룹홈연합회, 초지동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을 잇달아 방문,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그룹홈연합회에서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28개 그룹홈들의 운영 사례를 보고받고, 건의사항으로 제시된 아동 입소 시 전입신고 절차 간소화와 관련 조례 제정, 지원 센터설립 사안의 실현 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소규모로 운영되는 그룹홈들이 사실상 ‘보육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예산 지원이나 근무자 처우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방문한 안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복지관 별관 건립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발달장애인 지원의 전문성 강화, 장애인 거주시설 기준 확대 등의 현안을 집중 협의했으며, 지역 공설 수영장 이용 시 장애인 부모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의 근거가 없다는 점 등 평소 논의되지 않았던 세부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홍순목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으로 지역 복지 현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내실 있는 사례 조사를 통해 안산의 복지 정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당뇨병과 음주 : 안전하게 마시고 적당할 때 거절하기



술이 곁들여지기 마련인 즐거운 자리를 계획할 때, 당뇨병 환자는 늘 마음에 걸리는 그 무엇이 있기 마련이다. 더구나 사회생활에서 피치 못하게 술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 평소 정성스럽게 혈당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합병증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당뇨인들은 자주 난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뇨환자가 술을 마셔도 무방할까? 대답은 '예'이다. 단, 그것은 매우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적절한 주의사항과 적절한 음주량을 지킬 수 있는 경우에만 한하고, 적어도 알코올과 관련된 정신의존적 문제나 신체적 합병증이 없어야 하며, 술 때문에 그 다음날 운동이나 식이요법의 리듬이 깨지지 않아야 한다.

술을 마시면, 간은 포도당 생산을 중단하고 혈중 알코올을 분해하기 시작하므로, 술을 마시는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의 위험이 있게 마련인데, 특히 빈속에 마시거나 인슐린이나 설포닐유레아 같은 특정 혈당 강하제를 복용한 후라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애써 피했다하더라도 술 자체의 칼로리가 높고 일상의 규칙적 흐름

을 방해해 비만의 위험이 높아지니 가끔씩 적게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

혈당조절이 잘 되는 경우라면 남성의 경우 하루에 두 도즈(dose, 복용량), 그리고 여성의 경우 하루에 한 도즈인데, 이는 맥주는 캔으로 한 캔, 와인인 전용글라스로 한 잔, 소주나 위스키도 해당 전용 잔으로 한 잔씩을 말한다. 또한 비록 허용범위 내의 술을 마시더라도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식사를 챙겨 먹어라.
- 술을 마실 때는 알코올 도수를 신중히 체크하여 취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 술을 마시기 전에는 심한 운동을 삼가하고 운동 후 간단한 간식을 챙겨라.
- 저혈당에 대비하라.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를 지참하라. 약국에서 파는 포도당 정제도 유용하다.
-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친구에게 당신이 당뇨환자임을 알리고, 저혈당 발생 시 대처법을 숙지시킨다.
- 오후에 술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면 한밤중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잠들기 전에 스낵을 먹도록 한다.
- 술자리에 대한 주의 사항을 주치의에게 정확하게 전달 받아라.

• 심장내과전문의 이호준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김형석 교수 초빙, 생명사랑 강좌 연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공동의 노력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03년 제정했다.

안산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김윤희)는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연세대 철학과 김형석 명예교수를 초빙해 오는 9월 1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생명사랑 강좌를 연다.

김 교수는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 1943년 일본 조치대학(上智大學) 철학과를 졸업했다. 1964년부터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고독이라는 병'(1959) '영원과 사랑의 대화'(1961) '운명도 허무도 아니라는 이야기'(1963) '오늘을 사는 지혜'(1964) '현대인과 그 과제'(1966) 등 삶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는 수필집들을 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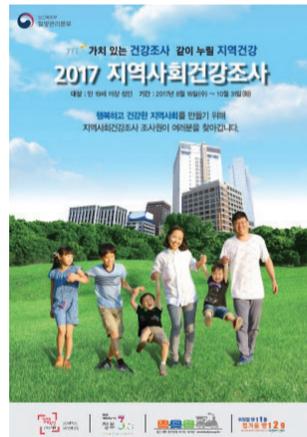
현재 98세의 나이에도 저술활동을 계속하면서 일상 속 작은 진리의 아름다움을 시적인 문체로 전한다. 최근에는 강연과 방송출연 등 다양한 매체에서 품격 있는 강의를 보여주고 있다.

김윤희 센터장은 "김형석 교수가 들려주는 '행복한 삶'의 메시지를 통해 스스로 행복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이웃과 안산시민 모두가 생명사랑에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선착순으로 무료입장이고, 시립합창단 공연과 건강체조,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준비돼 있다.

◇문의 : 안산시자살예방센터(031-418-0123)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흡연, 음주 등 지역별 보건사업 자료로 활용



안산시 상록구·단원 보건소는 8월 16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의하여 흡연, 음주, 의료이용, 삶의 질 등 21문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통계조사를 말한다. 조사기간은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 조사결과를 건강통계로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펼치는데 기본 자료로 쓰이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전국의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전체 조사결과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에도 공개하고 있다.

이번 건강조사 통계는 안산시의 건강생활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보건지표로 쓰이게 되며 앞으로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정책의 방향을 설정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사가 될 전망이다.

조사대상은 안산시 거주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이며, 교육을 이수한 전담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하나하나 방문, 노트북을 이용해 1:1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인 만큼 주민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안산시 단원보건소(031-481-2556)
안산시상록보건소(031-481-5924)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특별 기고

인공지능 시대, 사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②



테슬라 전기자동차와 스페이스엑스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컴퓨터 등에 의한 인류 지배나 멸망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인공지능은 앞으로 인류 문명의 최대 위협이 될 것이다. 정부는 사전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며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스티븐 호킹이나 빌 게이츠도 비슷한 입장이다.

반면 인공지능은 목적의식을 가질 수 없고 스스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인류를 위협하거나 지배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없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인공지능 그 자체가 ‘선’이거나 ‘악’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류에게 치명적인 해가 될 수도 있고, 노동과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데 이바지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대해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 산업 지능화, 양극화 해소, 인간소외 극복,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이며, 궁극적으로 균형적인 경제성장 및 인간 중심적 사회로의 진화를 표방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이나 소외와 같은 문제해결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능형로봇 기술의 발전과 함께 ‘로봇윤리’나 ‘로봇3원칙’ 등의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공지능이 인류문명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학과 인간존엄의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인공지능 사회의 도래를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자리의 축소나 정보의 격차문제, 생산성 향상과 생활의 편익증진 등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파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경제적 차원에서의 분배정의의 실현을 포함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 김재덕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정책연구팀장(경영학박사)



경찰 기고

전동킥보드·세그웨이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1인용 스쿠터) 등 개인용 이동수단의 사고가 2012년 29건에서 2016년에는 137건으로, 불과 4년 사이에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질주하여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큰 위협을 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런 개인용 이동수단들은 평균 시속이 20km이상이므로, 도로위에서는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인도위에서는 보행자보다 너무 빨라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상 1인용 전동기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만16세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탈 수 있으며, 면허가 있더라도 도로의 끝 차선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무면허일 경우 벌금 30만원, 차도가 아닌 곳을 운행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안전장구미착용 2만원,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및 정지,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를 타고 다니면서도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조차 몰라 무면허·무보험운행을 하고 있으며, 이를 판매하는 일반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판매만 할 뿐 자격요건이나 보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차도에선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역주행을, 인도에서는 종횡무진 난폭운전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사용자에게 대한 불만과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지만,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인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조건에 적합한 지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부처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안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 전영태 경위(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여름방학? 안산에서 즐긴다~!



작은 아이 학교에서 공문이 왔다. “학교 공사로 인해 여름방학을 연장합니다.” 긴 여름방학 아이들과 뭐 하고 보낼 지 늘 고민이었는데, 연장이라니... 그간 일을 하느라 소홀했던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방학만큼은 엄마가 실컷 놀아줄게~” 큰소리로 땡땡거렸던 것이 후회됐다.

“차로 멀리 나가는 곳은 안 되겠고, 안산을 돌아보자!” 하고 안산시 홈페이지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안산시 홈페이지,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등 찾다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중앙, 미디어, 감골 등 각 도서관과 평생학습관까지, 아이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방학기간 내내 준비했다. 큰 아이 진로 결정 시기에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가 생겼다. 별 기대 없이 신청했지만 막상 체험 해보니, ‘잡월드’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질과 양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다.

호수공원 실내수영장도 개장해 7월말까지 무료입장이었고, 안산문화광장에서는 여

리미오 페스티벌을 진행, 아이들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안산에 위치한 미술관과 기념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단원미술관, 최용신기념관, 성호기념관 등은 아이들과 함께 둘러보기 참 좋은 곳이다.

또 아이들과 영화도 보고 실내 트램블린장에도 갔다. 생각보다 꽤 많은 걸 한 것 같았는데, 비용은 거의 안 들었다. 대부분 무료였기 때문이다. 지출한 비용이라곤 조조영화와 실내놀이터 정도였다. 집 근처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 육아 때문에 낯선 안산이란 곳에 자리 잡았고, 한두 해 보내다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벌써 5년이란 시간을 지나 곧 10년 가까이 되어간다.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시골학교 같은 따뜻한 정이 있어 참 좋다. 집 주변은 조용하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원과 도서관이 많아 아이들과 여가를 보내기도 좋은 곳이다. 안산의 매력 덕분인지 “한 해만 데! 한 해만 데!” 하며 지내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것 같다.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아직 안산에는 즐길 게 참 많이 남았구나’라고 느꼈다. 아이들과 함께 안산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겨보자.

· 강선희(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남1로)



독자 기고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재개장

- ◇ 개 장 일 : 2017. 9. 1.(금)
-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통산로 268
- ◇ 이용시간 : 14:00부터 입장 ~ 익일 오전 11:00
- ◇ 이용요금

구분	성수기 (7~8월)	비수기		비고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일~목요일	
카라반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인 기준
카라반사이트	40,000원	40,000원	30,000원	6인 기준
오토캠핑사이트	25,000원	25,000원	20,000원	6인 기준

◇ 문의전화 : 안산시도시공사 (031-481-9800~1)

안산화랑 오토캠핑장 Open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편안한 일상을 벗어나 즐거운 추억을!

개 장 일 : 2017. 9. 1. 금

이용시간 : 14:00부터 입장 ~ 익일 오전 11:00

이용요금

사양	성수기 (7~8월)	비수기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	비수기 일요일~목요일	비고
카라반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인 기준
카라반사이트	40,000원	40,000원	30,000원	6인 기준
오토캠핑 사이트	25,000원	25,000원	20,000원	6인 기준

문의전화 | 031-481-9800-1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 ◇ 대 상 : 2004.1.1.~2005.12.31. 여자 청소년(어린이)
- ◇ 접종기간 : 2017년 12월 31일까지
- ※2004년생은 2017년내에 1차접종을 완료해야 2018년도 2차 접종 가능
- ◇ 접종횟수 :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 접종비용 : 무료
- ◇ 접종기관 : 국가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sc.go.kr>에서 확인가능
- ◇ 문 의 : 안산시 단원보건소 (481-3513~3515)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481-5891~5893)

기적의 숫자 5

사이렌 소리에 길을 터주는 경험, 있으신가요?
가을소풍으로 인해 열리는 교통상황,
5초간의 양보가 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뱀뱀뱀' 소리에 "나도 급하다 이거야" 하지 말고
"5.4.3.2.1" 양보의 숫자를 세뇌하는 건 어떨까요?

09 교통환경 캠페인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및 할인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OCR고지서, 자동이체, 농협전용계좌,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지로, 위택스에서 전자수용기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조회후 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간단 e-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 중 월 만원 한도로 상수도 요금의 1% 할인 혜택이 있는 자동이체 신청이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waterpay.iansan.net) 또는 인터넷 지로(giro.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031-481-2441~3)

2017 제4회 안산 World Peace 자전거 대축전

- 자전거타고, 안전모 받고, 장미여관 공연도 보자-
- ◇ 일 시 : 2017. 9. 10.(일) 09:00~14:00
 - ◇ 장 소 : 호수공원 중앙무대
 - ◇ 참가인원 : 선착순 1,500명 (참가비 5,000원)
 - ◇ 홈페이지 : <http://ansanbike.co.kr>
 - ◇ 행사내용 : 비경쟁 자전거퍼레이드, 이색자전거 체험, 자전거 무상수리,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부대행사, 공연 등

제4회 안산 World Peace 자전거 대축전

World Peace Bike Festival in ANSAN

2017년 9월 10일 일요일 9시 호수공원 중앙무대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 ◇ 행사기간 : 2017. 9. 29.(금) ~ 10. 1.(일) [3일간]
- ◇ 장 소 : 단원구 화랑유원지 및 고잔동 마을일원
- ◇ 주 제 : "정원, 도시의 숲이 되다."
- ◇ 주최/주관 : 경기도 · 안산시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안산환경재단
- ◇ 주요내용 : 원전시, 마을정원만들기, 공식 · 체험 · 문화행사, 국제도시숲컨퍼런스, 정원사업 홍보 · 판매부스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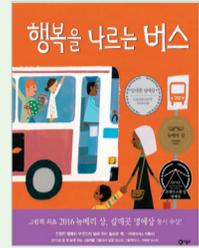
재활용 나눔장터

- ◇ 일 시 : 2017. 8. 26.(토) 10:00 ~ 15:00
- ◇ 장 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 ◇ 대 상 : 학생, 기관, 단체 등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 주 관 :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 외 12개 단체)
- ◇ 문 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5105)
- ◇ 주요내용 :
 - 재활용품(중고물품) 판매 및 물물교환
 - 재활용 리폼제품(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정크디자인 센터 제작) 판매
 - 환경운동 캠페인 및 친환경제품 만들기 등 체험부스 운영

책 읽는 안산 / 9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이야기숲을 거닐다』

아동



행복을 나르는 버스
저자 멧테라페나 / 출판사 비룡소

시제이는 궁금한 게 많고 활기찬 소년이다. 어린 손자의 난처한 질문에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로 재치 있게 응답한다. 나무도 목이 말라서 비를 짙짙 빨아 마시고, 자동차를 타는 대신 기사 아저씨가 마술을 보여 주는 불 뽕은 악어 버스를 탈 수 있다. 시제이는 할머니와 버스를 타고 마지막 정류장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이웃과 세상을 배우고, 그 속에 숨은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 더불어 사는 행복을 느낀다.

청소년



세븐틴세븐틴
저자 이옥수 외 / 출판사 사계절

언제나 우리 반의 중심이었던 반장이 어느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세븐틴 생일을 축하받지 못하면 평생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믿는 나는 반장의 세븐틴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쓴다.(박지리, <세븐틴 세븐틴>) 가장 빛나는 순간 '세븐틴'이 경험하는 찬란한 슬픔들,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아이들의 단단한 이야기.

성인



소년이 온다
저자 한강 / 출판사 창비

한강의 여섯번째 장편소설, '상처의 구조에 대한 투시와 천착의 서사'를 통해 한강만이 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1980년 5월을 새롭게 조명한다. 한강은 무고한 영혼들의 말을 대신 전하는 듯한 진심 어린 문장들로 어느덧 그 시절을 잊고 무심하게 5.18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여전히 5.18의 트라우마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무한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